

“한국 비구니 법맥 세계적 유산이죠”

인문 비구니사 정립 발원 본각 스님

비구니 스님들이 스스로 뿌리찾기에 나섰다. 비구 승단의 일부로 묻혀온 비구니 승단의 역사를 찾고자 비구니 스님 20여명이 모였다. 두달전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교수회관인 정진관에 새로 자리잡은 한국비구니연구소(소장 본각스님, 031-980-7775)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다.

연구소는 소장인 본각스님(중앙승가대학교)과 황인규 연구원(동국대 강사), 학인 연구원 14명을 비롯해 국내외 교수 10여명(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99년 11월 창립이래 학교의 정신타기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도 비구니사 정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본각스님으로부터 그간의 어려움과 서원을 들어보았다.

◆비구니연구소를 만든 목적은 불교계의 차별적인 성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나오.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비구니사의 정리 리는 학문적 과제가 우선입니다. 팔경법 등 예민한 문제는 비구니계에서 가능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900여 스님 인터뷰 자료 축적 학술회·논문집 발간 등 계획

연구원 20여명 ‘동분서주’... 지원 열악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구니사 연구를 발원한 계기는 무엇 인지요.

“99년 10월 연구소를 만들기 얼마 전, 대한매일신문에서 ‘한국 여성지도자 명감’을 작성한다고 제게 연락해온 일이 있었어요. 불교계 여성지도자에 관한 자료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록교계에는 일찍부터 박마리아 여사가 낸 <기록교와 한국여성 40년사> 등 많은 자료가 누적돼 있는데, 역사가 2000년에 가까운 불교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 하나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비구니들의 인명마저 정리되지 않은 현실을 조

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발심하게 된 것이죠.”

◆그간 말씀할 어려움이 많았겠는데요.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 및 예산(연간 3500만원 소액) 확보와 스님들의 이해 부족 등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올해까지는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께서 지원한 5천만원의 연구비로 지탱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인들은 노스님을 친견하러 다니다 매도 많이 맞았지요. 왜 수발을 안하고 쓸데 없이 돌아다니냐고 혼이 난거죠. 물론 학인들과 불교계 신문과 잡지 등을 뒤져 40여년간



의 산재된 기록을 모으는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구니사 연구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사료 역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본에는 <조동종 비구니사>란 책이 있는 정도예요.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비구니관련 논문들이 다소 있어서 거의 입수했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만큼 각종 사서와 금석문에서 비구니 및 우

바이 관련 자료를 수집해 해독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 비구니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회원으로 참여하려는 교수들의 편지와 관련 논문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폴 그로너 버지니아대 교수, 로버트 버스웰 UCLA대 교수, 엘리스 핀들리트리니티 칼리지 교수, 심재용 서울대 교수 등과 젊은 여성학자인 조은수 미시간대 교수와 이향순 조지아대 교수 등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히려 한국 비구니 승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비구니연구소는 24일부터 두 주간 학인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고문서 자료 찾기 실습을 갖는다. 사진은 4일 세미나실에서 금석문 해독 강의를 듣고 있는 학인들.

“한국 비구니의 법맥은 세계적 유산이예요. 현재 비구니 승단이 남아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일본 불교는 재가중심이어서 여성 수도자를 전통적인 비구니라고 볼 수 없죠.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불교전통이 거의 끊어진 것과 다름없고, 대만의 비구니 승단은 대륙의 전통에 맥을 갖다대는 것인데 그 전통이 사실 희미합니다. 다만 불광사 등이 중심이 돼 비구니들의 활발한 국제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점이 부러운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보람도 크시겠어요.

“철저한 수행의 자취를 남기고 간 비구니 스님들의 행적을 좇아보면 신심이 절로 납니다. 그런 발자취를 찾아내 알려야

후학들이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까지 학인 연구원들이 900여 스님들을 인터뷰 했는데, 가장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기억이라고 말할래요.”

◆향후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오.

“비구니사를 편찬하는 것이 장기 목표이지만, 시급한 것은 대학당국으로부터 정신타기를 받는 일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도 가능하니까요. 학술활동은 우선 비구니 강연사, 비구니 계승 정신사, 비구니 포교활동사 등 비구니 관련 13개 주제로 논문집을 발간하는 동시에 학술회의도 열 생각입니다. 학교측의 공식인기가 나오면 2003년 비구니 관련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동국학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입장

동국대학교는 교계 선각자들의 커다란 원력으로 의하여 설립되어 모든 불교인들의 공지와 자부심이 서려있는 교육불사의 총 본산입니다. 작금에 들어 이러한 동국대학교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대외적인 대학 교육환경 속에서 표류하면서 건학이념의 쇠퇴, 교육환경 악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의 저하, 나아가서는 방만한 교육재원의 운영에 따른 재정 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학내구성원은 물론 교계의 우려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금번의 공금횡령 사건은 내외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단과 학교당국에서는 당연히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공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명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재단 사무처장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위설명에서는 본 사건의 실체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는 이렇다할 내용도 없이 사고금액의 환수조치들에 대하여만 장황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당국 역시 본 사건을 단순한 개인횡령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재단의 단순 경리사고 정도로 미봉하려는 속내를 곳곳에 내 비추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12월 3일 이사회에서 조사소위를 구성하고 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사건의 정황에 대한 재단사무처장의 해명과 자체의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단뿐 아니라 학교당국에 대하여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실태의 점검을 통한 본 사건의 실제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본 사건은 회계조직에 대한 관리부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당국에서는 재단직원 김태규가 법인 직인을 도용하고, 이사장의 인감을 위조하여 별도의 법인통장을 신설하여 사무실에서 환급되는 법인세 환급금 약 34억을 임의로 인출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환급금은 법인이 은행에 예치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은행에서 원천징수 한 선 세금을 사무실에서 법인결산 신고 직후 비영리기관인 학교 등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별도의 법인통장을 신설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현금관리 시스템으로 볼 때 현금 관련계좌가 모두 법인 명의로 개설되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학교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환급법인세 관련계좌가 재단의 경리직원 수중에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법인의 직인을 발급직원이 도용할 수 있는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면 법인세환급금 관련계좌 이외에도 또 다른 현금관리 계좌를 마음만 먹으면 임의로 신설하여 현금을 도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면서 금번의 금융사고가 재단뿐 아니라 학교의 현금관련 계좌 전반에 걸친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본 사건은 특정 개인의 공금횡령사건이 아닙니다.

이번의 사건은 법인세환급금 관련계좌를 특정인이 일시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횡령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2000년도 5월 법인결산 직후 자동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법인세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재단은 물론 학교당국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2001년도 5월에 열린 결산 이사회에서도 지적되어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묵살하였다는 점에서 학교의 회계관련 담당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자금운용과 현금관리에 관계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결계선상 다수의 직무유기, 나아가 직 간접적인 묵인이나 공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약 34억에 달하는 학교 현금이 장기간 유용되면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로는 학교의 현금이 관련계좌를 빠져나가 임의로 유용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학교와 법인간의 변칙적인 자금 이동이 관행화 되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와 재단의 최고책임자간의 묵인과 결계선상에 있는 회계관련 담당자들 다수가 연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본 사건과 관련, 또 다른 현금유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는 각종의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잔고가 400억 이상이고, 등록금수입 등 일시적인 예치금액이 발생하면 학교통장에는 1000억 이상의 예치잔고가 남아 있게도 됩니다. 이러한 예치금의 통장 잔고를 항상 장부상의 금액과 대사 하는 것이 경리활동의 일상 업무로 학교는 엄격한 규칙에 의하여 매일, 또는 매달 장부상의 잔고와 통

장의 잔고에 대사 되도록 회계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장부상 잔돈 몇 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여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경리활동의 생리상 34억에 이르는 막대한 결손이 2년 가까이 묵과되어 왔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피의자 김태규가 세무조사 운운하면서 이를 숨겨왔다고 하나, 학교법원에 세무조사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실관계를 학교당국이 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세금이 1년 이상 환급 보류되는 경우는 범부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현재 학교의 회계관리 시스템 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현금유용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을 높여주는 사실로는 2000학년도 결산서 상 학교의 적립금잔고가 전년도에 비하여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전년도 대비 50%, 금액으로는 34억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원인이 이자율의 하락에도 있을 수 있으나 2000년도의 경우 이자율하락이 전년도에 비하여 3-4%정도임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적립금의 유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본 사건은 상당기간 묵인되어 왔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10월경 재단의 안재봉 팀장에 의하여 발각되어 총장에게 보고가 되면서 학교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 1달이 지난 11월 말경에 경리 담당직원 김태규를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인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의 주요 간부가 사건 수습을 위하여 속의를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바로 조치하지 않고 학교당국이 상당기간 은밀하게 사건 수습을 논의한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 10월경 안재봉 팀장의 제보로 학교측이 사건을 인지하였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학교의 현금이 유용되기 시작한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2000학년도 결산직후부터 이고, 더구나 올 5월 이사회에서 분명하게 문제제기가 된 것에 미루어 당시를 전후하여 법인세환급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상당기간에 걸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본 사건이 재단 경리직원 개인의 횡령사건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학교의 무리한 자금운용 및 변칙적인 회계관리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정상적인 회계시스템 상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그에 상응한 원인과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과 배경에는 학교당국의 무리한 자금운용과 변칙적인 회계관리, 그리고 불비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학교의 최근의 전반적인 재정운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우, 포항병원에 대한 결손금의 축소보고, 일산병원건립과 관련한 무리한 자금 동원, LA로말 대학의 인수와 운영과정에서의 학교와 재단간의 불투명한 자금이동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학교당국과 법인, 학교와 부속병원, 그리고 부속병원 상호의 변칙적인 자금이동과 변칙적인 운용 내역, 그리고 부실한 회계관리시스템이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금집행 포인트별로 불법적인 자금의 유출입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전체적인 자금흐름 및 집행실적의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학교의 자금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운영, 결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전체적인 자금운영 시스템의 검토 및 진단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본 사건의 실제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역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학교당국과 재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학교당국은 본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본 사건의 전말을 명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과 이사회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본 사건의 실제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 조사의 범위를 특정 개인의 부정적발에 한정하여서는 안되고, 동국대학 전반의 자금운용과 현금흐름, 그리고 학교의 회계시스템의 검토와 진단을 동시에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3. 본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관련 책임자는 외부감사를 통한 본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본인들 역시 실질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5년 12월 3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 학교 관리 위원회